

**FOMA** TECHNOLOGY  
Frontier of Mobile Access

회사명 : 포마테크놀러지  
대 표 : 박판중  
설립일 : 2002.02  
홈페이지 : www.fomatech.com

포마테크놀러지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포마테크놀러지는 Global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구현을 향한 이동통신 단말기 업계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고품질의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에 집중하여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YOUNG POONG.CO**  
영풍물산

회사명 : 영풍물산  
대 표 : 조재곤  
설립일 : 1993. 08  
홈페이지 : www.food4788.co.kr

영풍물산은 1993년 설립 이래 고품질의 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을 꾸준히 생산해 온 기업으로 1998년부터 일본으로 순등심돈까스, 돈육가공식품을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우리식품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고품질의 냉동식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2001년 4월 한국전통의 전을 냉동식품으로 제품화, 특허 출원을 했다.  
'맛다른' 이란 상표등록으로 더 다양한 제품과 농·축·수산가공냉동식품, 완전조리 냉동식품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INFNIS**  
Infinit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회사명 : 인프니스  
대 표 : 김세곤  
설립일 : 2002. 01  
홈페이지 : www.infnis.com

인프니스는 네트워크 정보·보안 솔루션 개발 및 판매와 네트워크 관련 기술 선도 제품 개발,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3년 2월 VPN 및 QoS 관련 보유기술을 특허출원하고 3월에는 KT Managed VPN CPE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된 인프니스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기업이다.  
인프니스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된 강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술력으로 자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S-Cera**  
Ceramic Filter & Resonator

회사명 : 에스세라  
대 표 : 성연우  
설립일 : 2002.11  
홈페이지 : www.scera.co.kr

에스세라는 10여년간 축적된 압전세라믹 기술로 삼성전기(주)에서 2002년 분사하여 전문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현재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압전 세라믹 레조네이터 SMD(2520, 3731 Size)이며,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과 양산기술로 삼성전자 휴대폰 및 해외 로지텍을 비롯해 100여개 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에스세라는 R&D를 중심축으로 미래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핵심 전자통신 부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ideoNET**  
Digital audio video network

회사명 : 디디오넷  
대 표 : 강용일  
설립일 : 2001. 09  
홈페이지 : www.dideonet.com

디디오넷은 멀티미디어 관련 영상벤처기업으로 고화질 동영상 DAT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Network(스트리밍)을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 SeeVideo를 개발, 판매중에 있다.  
Video, Audio, Multimedia, Solution인 SeeVideo를 교육기관, 기업체, 관공서, 콘텐츠사업자 등이 각각 동영상(Vod) 서비스, 원격 동영상강의, 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실, 기업 및 제품홍보, 민원 안내, 인터넷방송, PC방에 실전 적용할 수 있다.  
디디오넷은 Digital 영상 구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초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AY MYOUNG ENGINEERING Co., Ltd.

**대명엔지니어링주식회사**

회사명 : 대명엔지니어링  
 대 표 : 정태열  
 설립일 : 1998. 10  
 홈페이지 : www.dmegn.co.kr

대명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부품 및 설비 신기술기업으로 국내 및 해외 반도체 회사의 협력업체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반도체 LCD GAS BELLOWS, 반도체 LCD장비의 VACUUM COMPONENTS, 반도체, LCD설비의 VALVE MODIFICATION, POWDER제거용 HEATING JACKET Ass'Y, UTILITY 배관공사의, WELDED BELLOWS/SUPER BELLOWS Ass'Y, VALVE OVERHAUL 등이다. 고정도, 고성능 제품개발기술의 축적 및 노하우로 고객의 품질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Biztech**

회사명 : 엠비즈테크  
 대 표 : 이철희  
 설립일 : 2000. 10  
 홈페이지 : www.mbiztech.co.kr

엠비즈테크는 OSS(Operational Support System)분야 중에서 이동통신시스템에 사용되는 응용프로토콜(ISUP/MAP/A-Interface등)과 IP관련한 프로토콜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뮬레이터 및 품질관리 솔루션 개발과 중계기관리시스템과 같은 응용 NMS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의 O&M 솔루션 개발이 주 사업분야다. 그 외에도 유익하고 편리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개발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Mobile business의 젊은 도전자 엠비즈테크는 대한민국의 Mobile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SIW**<sup>TM</sup>  
 Simply to make people  
 SiliconImageWork Inc.  
 회사명 : 실리콘이미지웍스  
 대 표 : 이종훈  
 설립일 : 2003. 01  
 홈페이지 : www.siliconimageworks.com

실리콘이미지웍스는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이미지 센서 제작기업이다. 실리콘이미지웍스의 제품은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 센서로 주로 지문인식 등에 쓰일 수 있는 센서다. 지문인식용 센서 개발기술은 TFT-LCD 공정 및 설계 기술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탁월한 기술인력(전체인력의 80%)이 TFT소자에 대한 설계 및 연구를 5년 이상 경험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독자적인 R&D를 기반을 구축으로 개발됐다. 광학식의 단점과 반도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박막트랜지스터형 초박형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



회사명 : 비투비인터넷  
 대 표 : 이한주  
 설립일 : 2000. 01  
 홈페이지 : www.b2binternet.co.kr

비투비인터넷은 웹서비스 기반의 기업간(B2Bi) 및 기업내(Eai) 애플리케이션 통합 솔루션인 "Xicoware"를 통하여 기업간·기업내의 e-Business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 기업의 원가 절감과 수익창출에 공헌하는 국내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전문 기업이다. 비투비인터넷의 주력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비즈니스 관련 전자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서버(NT, 유닉스), 기업의 내부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XML문서로 변환 및 통신할 수 있는 XML 서버, 인터넷 환경에서 XML을 이용한 전자입찰업무를 지원하는 전자입찰 서버, 경매, 역경매, 공동구매, 입찰, 요청서 및 네고기능이 부가되고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가 용이한 B2B 솔루션과 ERP ASP다.

**NEWCOM**

회사명 : 뉴컴  
 대 표 : 조미애  
 설립일 : 1998. 10  
 홈페이지 : www.newcom21.com

뉴컴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다. 뉴컴은 한국 최고의 영상물만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최고의 작가와 PD들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로 1999년 IMF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KBS 신년특집 '세계경제 정상을 만나다' 5부작을 기획, 제작하여 능력을 인정받았다. 뉴컴은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과 최신 영사기자재의 사용, 뜨거운 정열로 최고의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